

포경수술,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60% 낮춰

남성 포경수술이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감염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경수술에 대한 태도가 혁명적으로 변할 것으로 세계 최대 에이즈 예방단체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저지 세계기금'이 믿고 있다고 영국의 더 인디펜던트 인터넛판이 9일 보도했다. 이 기금의 간부인 리처드 피침 집행이사는 포경수술의 HIV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에 걸쳐 부모들의 기대와 의학적 관행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이 포경수술을 하면 성행위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HIV 감염이 6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지난해 나왔으며, 사하라 이남 모든 남성들이 포경수술을 하면 앞으로 20년간 약 600만 건의 HIV 감염과 300만 명의 에이즈 사망을 피할 수도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와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연구팀이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피침은 "포경수술이 남아프리카와 북미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포경수술을 하려는 남성들을 남아프리카에서 대단히 흔히 볼 수 있다. HIV 예방 효과에 관한 뉴스는 성인 남성 포경수술 수요를 상당히 많이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포경수술은 북미와 영국에서 인기가 사라졌으나 연구 발표 후 부모들의 유아 포경수술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1930년대는 소년 3명 중 한명이 이 수술을 했으나 1940년대 이래 인기가 사라졌고 1998년에는 영국에서 1년 내내 1만 2천명이 이 수술을 한 것으로 추산돼 소년 25명 당 1명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2006.08.09〉

에이즈, 감시 아닌 안권의 시선 필요

7월 30일 일요일 서울 신촌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의학계에서 이제 에이즈는 고혈압,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생소한 내용이다. "환자를 위한 약이라면 싸게 공급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서명에 참여한 원주리(24)씨도 "솔직히 에이즈라고 하면 무섭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말했다. 에이즈라는 병이 어떠한 질병인지, 감염경로, 치료법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은 HIV/AIDS 감염인을 '절저한 관리가 필요한 공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정부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 관련단체들의 시각이다. 현

재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월 국회 상정 예정인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전면 폐지하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둔 법률안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날 캠페인은 특히 HIV/AIDS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거대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독점적 특허권을 가지고 '사먹을 수 없는' 약값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감염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특히 FTA가 체결될 경우 독점적 특허권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고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은 더욱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캠페인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은 대체로 캠페인에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치료받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명에 동참한 김은재(22)씨는 "약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는 상업적인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12월까지 매달 집중적인 이슈를 내세워 캠페인을 가져갈 예정이다. 8월의 주제는 "직장에서의 HIV/AIDS 감염인 차별문제"다.

〈일다 2006.08.02〉

디지털바이오메트릭, 에이즈 진단장비 국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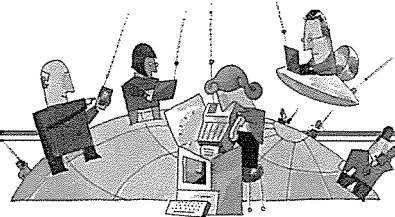
에이즈(AIDS)를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다.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전문 벤처기업인 디지털바이오메트릭놀로지(DBT·대표 정준근)는 에이즈 환자 모니터링 장비(제품명 CD4카운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26일 발표했다. DBT가 개발한 장비는 사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 중 에이즈 감염시 현저하게 줄어드는 'CD4 림프사이트(백혈구 중 림프구의 한 종류)' 숫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기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에이즈를 진단하는 방법은 1차 항원항체 반응으로 사전 검사를 한 다음 혈액 내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박진형 DBT 이사는 "기존 장비 가격이 6500만원을 넘어서고 1회 검사비용만 4만 원가량 되지만 CD4카운터는 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하고 1회 검사비용은 4000원 수준"이라며 "빠르고 정확한 측정, 저렴한 가격대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6.07.26〉

인도 경제의 최대 복병은 '에이즈'

에이즈 확산으로 인도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보고

제2회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는 「제2회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이 개최된다. 응모과제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 방안'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콘돔사용 활성화 방안'이며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 튀는 아이디어로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다. 참가자는 최대 4명까지 팀을 구성하여 기획서부문(광고, PR, 마케팅, 프로모션), 전파부문(TV-CF 공익광고, 라디오, 인터넷), 인쇄부문(신문, 잡지, 포스터)에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여 대학생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전략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 대상 1개 팀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금상은 부문별로 질병관리본부장상과 총상금 300만원, 은상이하 16개팀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상(총 29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에이즈 예방과 더불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를 대학생의 창의적인 감각으로 풀어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상작품은 향후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TV공익광고 등에 실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업전쟁의 중심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에 도전하려면 먼저 공모전 오리엔테이션(9월8일)에 참가하여 에이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응모과제에 부합되는 작품을 만들어 접수기간(9월20일~9월28일)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제출된 작품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예심, 본심)를 통해 엄선하고, 10월 말경에 있을 시상식에서 수상작품 시상, 수상팀 발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aids.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02-515-4223 공모전 담당자)

〈연합뉴스 2006.08.09〉

서가 나왔다. 21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소(NCAER)는 2002~2003년부터 2015~2016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에이즈 문제로 연간 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8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소가 UN 주관으로 인도 국립에이즈협회와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인도의 성인 에이즈 보급률은 0.9%로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인도 11억 명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에이즈 환자수는 '에이즈 대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넘어선다. 현재 UN은 인도에 560만 명의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가량이 에이즈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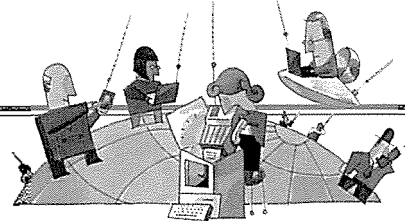
NACER은 "에이즈 환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 2010년까지 2000~2500만 명으로 5배 늘어날 것"이라며 "인도 경제에 가시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군으로는 관광, 제조, 건설, 광산업 등이 가장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NCAER의

V.P.라오 이코노미스트는 "에이즈가 향후 10년 후에 인도 경제의 1.5%포인트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니투데이 2006.07.21〉

릭 워렌 목사 "한금 에이즈 환자 위해 쓸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인도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가 1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14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렸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모두 7만여 명이 참석해 좌석은 물론, 통로까지 꽉 채우며 성황을 이뤘다. 워렌 목사는 집회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릭 워렌 초청 컨퍼런스 준비위원회(위원장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이 집회를 통해 목회자 3347명, 평신도 2966명 등 모두 6313 명이 사후장기기증을 서약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후엔 한금 4억4000여 만원이 걸렸다. 이 한금은 당초 계획대로 아프리카와



게이츠재단에이즈백신 개발에 2억8700만 달러 지원

게이츠 재단이 또다시 대규모 기부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해 2억8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게이츠 재단은 연구 성과를 낸 연구소에 보상을 지급하고 연구자들과 서로 협력하게 함으로써 에이즈 백신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에서 에이즈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니컬러스 헬먼 박사는 "이번 지원액은 에이즈 연구에 있어서 게이츠 재단 사상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는 16개 연구실로 구성되며, 전 세계 19개국 연구자 16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연구자들은 백신 개발에 따른 특허나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개발된 백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81년 에이즈 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래 약 400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일경제 2006.07.23)

국내 에이즈환자를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2006.07.15)

3가지 AIDS치료제 통합 FDA '아트리플라'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2일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치료에 널리 쓰이는 세 가지 약을 하나로 결합, 환자들이 훨씬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치료제 '아트리플라'를 승인했다. 미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와 질리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아트리플라는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치료용으로 쓰이는 서스티바와 바이리드, 엠트리바를 하나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AIDS 환자들은 세 가지 약을 각각 구입할 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하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약값은 한 달 복용분이 1150달러로 책정됐다.

초기 AIDS 치료에는 이른바 '칠타일 요법'으로 불리는 방법이 쓰였다. 환자들은 하루에 30~50개 알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약마다 먹는 법과 마시는 법 등이 달라 곤란을 겪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 2번 복용으로 줄어들었다.

질리드 대변인인 제임스 로두카는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HIV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평생을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며 "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꽤 큰 발전"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2006.07.13)

에이즈 감염되고서도 21년간 건강 "이상 무"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고서도 특별한 치료 없이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들 희귀 면역체계 환자(군을) '엘리트 컨트롤러(elite controller)'라 불리는데 전체 HIV 양성 반응자의 0.33% 정도로 추정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동성애자인 미국인 매트 트레이웬(46)은 21년 전인 1985년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카이 브러더스(43)란 사람도 89년 HIV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 하버드 의대의 브루스 워커 교수는 "이들이 어떤 이유로 면역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엘리트 컨트롤러'들은 양성반응자라는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오랫동안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물론 지금도 언제 발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브러더스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에이즈에 걸린 그의 파트너와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절망 감 속에 황폐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을 '생존자'라고 부르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6.07.08)

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T면역 세포배양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면역세포의 하나인 T세포로 분화시키는 실험이 성공을 거둬서 에이즈에 대한 유전자치료법 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에이즈연구소와 줄기세포 생물학-의학연구소 연구팀은 국립과학원회보(PNAS)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인간배아세포를 조혈세포로 분화시키고 이를 다시 성숙한 '헬퍼(helper) T 세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기능을 지닌 '헬퍼 T세포'는 면역시스템을 구성하는 림프구의 하나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면역세포이다.

연구팀은 먼저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쥐의 골수지시세포에 배양해 조혈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이 조혈세포를 쥐에 이식한 인간의 흉선(胸腺)에 주입, '헬퍼 T세포'로 전환시켰다. 인체의 양쪽 폐 사이에 있는 나뭇잎 모양의 내분비선인 흉선에서는 면역반응을 촉진하는 '헬퍼 T세포'와 함께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서프레서(suppressor) T세포',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킬러(killer) T세포' 등 3가지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

연구팀을 지휘한 생물학자 조란 갈릭 박사는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헬퍼 T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은 앞으로 에이즈 치료에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일원인 제롬 채크 박사는 이 연구결과는 인간배아줄기세포가 T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통제하는 신호의 해독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6.07.05〉

워싱턴 D.C., 전 주민 '에이즈 검사'

미국에서도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가 27일부터 14~84살까지 시내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HIV 검사에 나섰다. 6개월 간 진행될 이번 HIV 검사대상은 모두 56만 명이며, 소요비용은 모두 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HIV 검사를 하는 것은 워싱턴 디시가 처음이다. 마르셀라 호웰 시 대변인은 "주민들이 할업이나 당노검사처럼 HIV 검사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100만 명이 HIV에 감염됐으며 이중 3분의 1은 자신의 감염사실도 모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겨레 2006.06.28〉

에이즈 감염 가능성 배우자에 알려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3일 위험성 높은 성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체 7명인 대법관 중 4명의 다수의견으로 이뤄진 이번 판결이 부주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주장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마빈 백스터 판사는 "에이즈 전파의 부주의성에 대한 판단이 단지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여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행위자가 상황의 전체적 맥락에서 감염 여부에 대해 알아야 할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확장된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백스터 판사는 이어 "에이즈처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은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은 감염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회피하거나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결혼한 한 여성이 신혼여행 때 남편으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됐으며 약 4년 전 남편을 상대로 결혼 이전 10년 동안의 성생활 상대자 이름 및 거주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 나온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의 병원 기록과 성생활 이력만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2006.07.04〉



감염인 지원센터 개소

- ◆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9월 초 감염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규모는 연건평 400여 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강증진실, 구강건강실, 각종 상담실, 재가복지지원실, 정보화교육실, 감염인사랑방(정보교류 공간), 커뮤니티실, 시청각실 등 감염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 **감염인 지원센터 이용 문의 02)861-4114**
- ◆ **감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positive.or.kr**